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②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Prof. Dr. Lee, Sunkoo
Soongsil University, Seoul/Korea

「본(Bonn)」시 건물관리청(SGB, Städtisches Gebäudemanagement Bonn)이 공모공시 한 연방시 「본」 보틀러 광장 ‘교육의 집(Haus der Bildung)’의 설계공모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 2008. 4.22 유럽연합(EU) 공모공시 발송
- 2008. 6. 4 응모마감
- 2008. 6.12 참가자 범위 결정
- 2008. 6.13 제반 서류 송달
- 2008. 6.24 질의응답(콜로퀴움)
- 2008. 9.15 공모작 제출
- 2008.10.17 공모 시상심의위원회 회의
- 2008.10.24 부터 공모작품 전시

‘교육의 집’ 설계공모는 세가지 서류로 구분되는데, 독일연방국의 다른 공모과정에서 처럼 ①공모공시(Auslobungstext), ②공모결과 기록(Protokoll) 및 ③문서화(Dokumentation)로 구성된다.

공모공시

공모공시 문서는 이번 ‘교육의 집’의 경우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은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공모주관자, 공모의 조절과 운영, 공모대상, 공모의 종류, 허용범위, 참가자격, 공모서류, 질의응답, 공모작품 제출, 시상 심의위원회, 예비검토, 판단 제(諸)기준, 상금 및 매입, 계획작업 위임, 저작권, 공모결과 공시 및 공모작품 공공전시, 공모출품작 반송, 공모작품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한 보증책임, (시상심의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모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여러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들 중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시상심의위원회 위원들—심사위원, 부(副)심사위원 및 (표결권 없는 해당분야)전문가—의 명단을 공모공시 문서에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보통 공모주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예비검토’는 제출된 작품들의 가치판단 없이, 형식을 갖추고 양적(量的)으로 검토되며, 작품들의 법적 구속력있는 판단은 나중 시상심의위원회에 귀속된다. 예비검토 결과는 결정을 위한 예비검토 보고서로서 시상심의위원회의 자유로운 이용에 이바지한다.

이번 ‘교육의 집’의 경우 「본」시 건물관리청의 위탁을 받은 ‘도시 발전,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주식회사 니만+시테게사(社) (Niemann+Steege Gesellschaft für Stadtentwicklung Stadtplanung Städtebau Städtebaurecht mbH)’가 2008년 9월 16일부터 1개월간 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예비검토 보고서 (Vorprüfungsbuch)’는 2008년 10월 17일 시상심의위원회 회의록 송달로서 통보된다. (이하 ‘공모 출품작 예비심사’ 부분 참조)

상금 및 매입

총 71,000유로(한화 1억 2천 8백만원)가 상금 및 작품 매입비로 책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금	작품구입 ¹⁾
1등 25,000€ (~4천 5백만원)	1. 4,000€ (~7백 3십만원)
2등 17,000€ (~3천 6십만원)	2. 3,000€ (~5백 4십만원)
3등 12,000€ (~2천 백 6십만원)	3. 2,000€ (~3백 6십만원)
4등 8,000€ (~천 4백 4십만원)	

시상 심의위원회는 공모공시된 금액의 결정을 자체결정을 통하여 위와 다르게 배분 할 수 있고, 공모 참여자들은 비용보상에 관한 권리가 없고, 작품 제작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없다.

계속작업 위임

시상 심의위원회는 공모결과 결정 후 계속작업을 위임하기 위하여 서면 추천을 하게 되며, 공모주관자(「본」시 건물관리청)는 시상 심의 위의 추천을 존중하여 수상자 1인 또는 복수의 수상자들에게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위한 보수구정(HOAI)’ 15조에 따른 1부터 5까지의 과업단계(1.기초조사 2.예비계획 3.설계계획 4.허가계획 5.실시계획) 작업을 위임하게 된다.²⁾

소유권 및 저작권

수상 및 매입으로 표창된 작품들의 제반 서류는 공모 주관자의 소유물이다. 작품들은 공모주관자가 공모 참가자의 이름을, 법적 인물의 경우 저작자와 저작자의 협력자 이름을 명명(命名)하여 전시할 수 있고 특별한 보상없이 문서화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다. 공모주관자는 첫 번째 출판권을 가진다.

당선작 모조(模造) 건축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저작권, 설계출판권은 저작자 소유이다. 이용권의 양도와 함께 공모 참가자와 그 법적 후계자는 공모작품과 실현된 작품간의 차이를 허가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무는 1965. 9. 9일자 저작권법을 통하여 정해진 법적 틀 내에서 유효하다.

공모결과 공시 및 공공 전시

공모결과는 공모참가 권리 검토의 유보(留保)하에 모든 참가자들과 주(洲)공모위원회에 시상위원회 회의록 송달로서 통보된다.

평가에 허가된 모든 공모작품들은 저작자 이름 제시하에 14일간 공공에 전시된다. 이 전시에 시상심의위 회의록 또한 진열된다. 전시 장소 및 전시 개시와 전시기간은 공모과정 참가자들, 공모위원회 및 공공 언론과 전문잡지들에 적시(適時)에 통보된다.

공모작품 반송

공모작품들의 반송은 요구에 따라 또 무료로 공모참가자들에게, 작품들이 공모주관자의 소유로 전환되지 아니한 한 「니만+시테게」 도시발전 도시계획법 주식회사가 발송한다.

보증책임

공모작품들의 훼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 공모주관자는 공모주관자가 자신의의 사안에 통상 적용하는 주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훼손된 또는 분실된 자료들의 수선 또는 다시 마련함을 위한 비용보상 보증 책임을 진다.

이의제기

시상 심의위 결정은 최종적이다. 공모과정 실행에 있어서 규칙을 어긴 경우 공모 참여자들은 회의록 도착 후 10일 내에 공모주관자에게 항의 할 수 있다.

공모주관자는 공모위원회의 양해 아래 결정을 내린다.

공모 출품작 예비심사

1. 예비심사 과정

연방 시(市) 「본(Bonn)」의 ‘교육/문화의 집(Haus der Bildung)’ 설계공모 출품작들의 예비심사는 「본」시 건물관리청(Städtisches Gebäudemanagement Bonn, SGB)과 긴밀한 조율하에 「뒤셀도르프」시 소재 도시계획관련 전문계획 사무소 「니만+시테게(Büro Niemann+Steege)」주식회사가 2008년 9월 16일부터 1개월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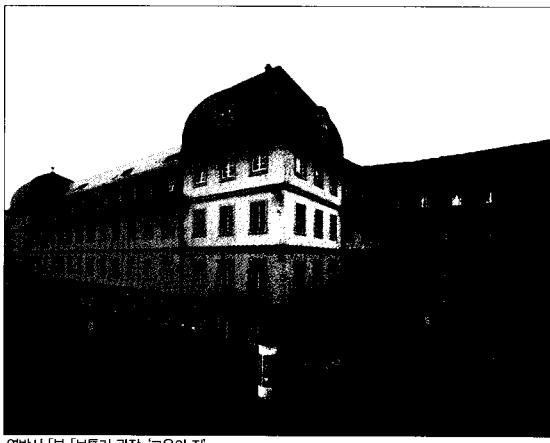
건축 제비용 검토는 「켐펜 크라우제(Kempen Krause)」엔지니어사(社)에 외주(外注)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에너지와 구조계획 및 투자와 운영비용의 타당성을 검토케하였다.

이번 공모과정에 상관된 「본」시 관계자들이 2008년 9월 24일, 「니만+시테게」사무소가 제출한 작품들을 선별(選別)한 후, 회동하여 아래 15인의 인사들이 예비심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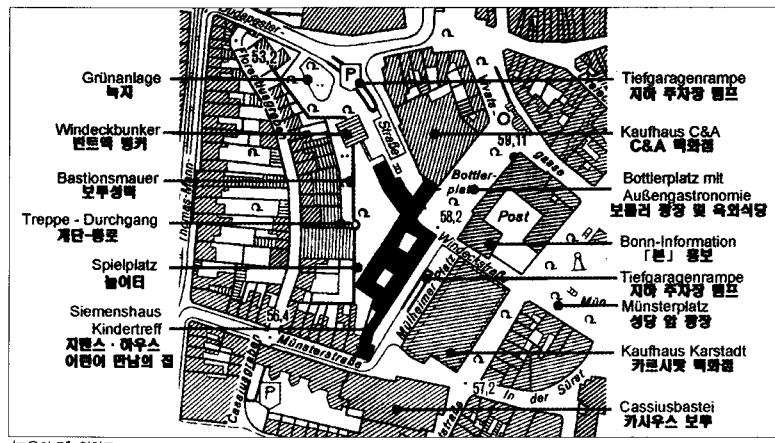
- 「본」시 건물 관리청(SGB) 프로젝트 주관인 데트마르 · 월
- 「본」시 건물관리청 자상건물/기술업무 담당부장 아네테 · 봄마 외
- 도서관장 마리안네 · 브라육만

1) 작품구입은 사실상 4등 이후 5, 6, 7등에 해당됨.

2) HOAI의 9과업 단계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선구,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 (최종보고서 2009. 2. 24) p.16 및 pp.38~42 참조



연방시「본」「보를러광장」교육의 집



'교육의 집' 위치도

- 국민대학(성인교육기관, VHS)장 잉그릿 · 쉘 박사
- 시 문화 담당부서 아네테 · 호르츠
- 문화재 관청 프란츠 · 요셉 탈봇 박사
- 건축 법규청 빌리 · 도르마겐
- 도시계획청 마르쿠스 · 빌더
- 소방 및 위험방지부 토마스 · 베닝
- 나만+시테게 사무소 베아테 · 나만 박사 외
- 캠펜 · 크라우제 엔지니어 사(社)

-문화재 보호

-교통 관계사항

-건축법적 및 계획법적 관계사항

-전략문서³⁾

-형식적 기준들

예비심사 결과는 아래 범주(範疇)에 따라 세분된다.

■ □ □ 충족시키다./있다.

□ ■ □ 조건부로 충족시키다./불완전하게나마 있다.

□ □ ■ 충족시키지 못한다./없다.

5. 판단 기준들

제출된 작품들은 수상심의 위원회에서 과업제시에 언급된 판단기준들에 따라 판단되며, 순서는 가치평가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적 및 건축적 개념의 형태구성적 및 공간적 질(質) 특히,
- 지도적 상(指導的 像, Leitbild)⁴⁾/모범 및 형태를 결정 짓는 기본 아이디어
- 도시계획적 주변 및 주변 공지와의 연계, 주변 이용과의 연결
- 도시계획적 틀의 제여건과의 창의적이며 구법적 타결(妥結), 특히 기념물(문화재) 보호적 사안에 관련
- 적절한 척도성(尺度性)
- 공지(空地)의 형태구성 및 이용상의 질(質)
- 기능적 및 기념물 보호법적 국면, 특히
- 부동산 입지 및 기존 건조물과의 상관관계 개념
- (건물)이용상의 변경 및 건물 증축가능성들의 제시
- 외적(外的) 및 내적(內的) 동선의 기능성 제시
- 설비체계, 생태(生態)적 및 에너지 기술적 개념
- 건축계획적, 건축법적 및 기념물 보호법적 실현가능성의 확보
- 경제성, 특히
- 실현가능성
- 융통성

공모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Preisgerichtssitzung)의 틀 속에서 「나만+시테게」사무소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만+시테게」사무소에 제출된 응모작품들은 공모공고를 준수하였는지 및 질의 응답 「콜로퀴움」후 규정된 형식적인 규제사항들을 지켰는지 검토되었다. 제출도서의 형식을 지켰는지 및 요구된 업무를 전부 충족시켰는지가 검토되었다.

2. 제출된 응모 작품들

총 15개 사무소들이 공모작들을 기한내에 또 익명으로 제출하였다. 작품 저작자들의 표지(標識)는 1001부터 1015까지의 위장번호로 대체되었다.

3.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

15개의 응모작품들은 똑같이 1001부터 1015까지 번호 표시한 4페이지의 비교 설명서로 제시되었다.

4. 검토 기준

공모공고자(주관자)의 규제사항을 지켰는지는 아래의 범주에 따라 문서화(文書化)되고 경우에 따라 주석으로 보완된다.

- 일반사항
- 도시계획적 제 목표
- 공간계획상의 요구사항들

3) 에너지 기술, 구조역학 및 비용에 관한 제문서.

4) “지도적 상(指導的 像, Leitbild)” 개념은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영상(映像, image)을 뜻하며, 어느 계획 아이디어가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이는지를 의미함.

- 건물 유형 및 이용상의 안배(按排)의 경제성
 - 투자 및 투자후속 비용
- 수상심의 위원회는 판단에 필요한 추가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

6. 예비심사 보고(출품작 1001부터 1015까지)

나중 수상심의 위원회에서 1등 당선작으로 선정된 출품번호 1002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도시 「본(Bonn)」/보틀러(Bottlerplatz)광장 “교육/문화의 집(Haus der Bildung)”

기본개념(작품설명서로부터 편집발췌)

설계의 우선적 목표는 한편으로 ‘교육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입구(入口)상황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건물내부에 두 가지 이용분

야(국민대학과 도서관)간의 공동 이용을 유발하는 연계를 실현시킨 점이다.

설계는 이를 위하여 두가지 커다란 건축적 조치를 취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인지를 위하여 「지멘스 하우스」 대신 새로운 초대하는 입구 건물이 만들어졌다. 건물내부 감지를 위하여 커다란 대표성을 지닌 독서 마당 겸 광정(光정)이 만들어지고, 이 광정주변으로 시립도서관과 ‘국민대학’ 교실들이 배치되고 서로간의 시각적 연계를 가능케 한다.

‘교육의 집’의 후원(後園)은 옛 도시성벽에 기대어 그림과 같은 피난처를 구성하며 고도(高度)의 체재의 질을 창출한다. 따라서 도시박물관과 주모지를 위한 건물 설계개념의 주요사안이 되었고 외곽은 완전하게 유지된다.

‘플로렌티우스’ 해자(垓字) 통과도로와 도시 성벽을 노출시킴은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더 이상 덮는 일은

“Haus der Bildung” Bottlerplatz Bundesstadt Bonn		
	1001 NF Realisierungsteil: 5.811 qm NF Ideenteil: 2.952 qm	
	1002 NF Realisierungsteil: 6.632 qm NF Ideenteil: 2.858 qm	
	1003 NF Realisierungsteil: 6.612 qm NF Ideenteil: 2.728 qm	
	1004 NF Realisierungsteil: 6.131 qm NF Ideenteil: 3.054 qm	
	1005 NF Realisierungsteil: 6.600 qm NF Ideenteil: 3.323 qm	
	1006 NF Realisierungsteil: 6.352 qm NF Ideenteil: 3.089 qm	
	1007 NF Realisierungsteil: 6.711 qm NF Ideenteil: 3.158 qm	
	1008 NF Realisierungsteil: 5.849 qm NF Ideenteil: 3.058 qm	
	1009 NF Realisierungsteil: 6.421 qm NF Ideenteil: 3.358 qm	
	1010 NF Realisierungsteil: 6.487 qm NF Ideenteil: 2.725 qm	
	1011 NF Realisierungsteil: k.A. NF Ideenteil: k.A.	
	1012 NF Realisierungsteil: 5.716 qm NF Ideenteil: 3.297 qm	
	1013 NF Realisierungsteil: 6.126 qm NF Ideenteil: 3.110 qm	
	1014 NF Realisierungsteil: 6.450 qm NF Ideenteil: 2.930 qm	
	1015 NF Realisierungsteil: 6.243 qm NF Ideenteil: 3.286 qm	

1001~1015 위장번호로 표시된 공모 출품작들(NF 이용면적, 실현 부분~아이디어 부분)



시사 심사위원회 회동, 중앙이 위원장 「되르테·가터만」 교수



증명작품을 순회하는 심사위원들

배제되었다.

「빈트엑」 벙커의 건물 패스에 대조를 이루며 벙커 주변으로 벙커에 기대어 「필리그란」 구조의 신축구조물로 확장된다. 건조물의 높이와 부피는, 기존 건물들에 필요한 인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율되

었다. 여기에 가로선(건축선)은 일종고의 입구 건조물로만 표시된다.

상부로 향하는 건물부위는 「빈트엑」 벙커의 기존 건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교육의 집”的 전면에 일관되게 계속되는 입면을 가능케 한다. ■

일반사항	소견
■ □ 공모한계를 준수	
도시계획적 목표 요구사항	소견
「보틀러」광장 목표영역 ■ □ 기존상황유지, 특히 입구상황유지	기존 입구를 행정만을 위하여, 건축적 변경없음
「뮐하임」광장 목표영역 ■ □ 새로운 이용을 위한 입구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자멘스·하우스」를 끌어들임	신축+새로운 이용: 도서관 및 국민대학 주 출입구를 「자멘스·하우스」 건물에 신축
「부다페스트」가 목표영역 ■ □ 기존 건물들과 건축적 보완 및 도시 가옥의 처마선 높이와 건축선 유지 ■ □ 기존녹지와 차도에로의 연결도로들을 - 지하차고 진입로 포함 - 새로운 구성으로 편입	벙커 증축은 도시가옥 처마선보다 높지만, 건축선을 지킴 「부다페스트」가의 시립박물관 입구
중정 목표영역 ■ □ 증축이 1층 영역보다 높지않음 ■ □ 녹지배치 연관성 있음 ■ □ 구성에 있어서 역사적 도시성벽연계 ■ □ 도시성벽에 녹지구역 보존	증정 내에 증축없음 증정내 공지공간으로 포함시킴: “문화정원” 주변으로 산보로

교통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 □ 부지에 「뮐하임」광장을 통하여 접근 ■ □ 후방(後方)영역으로의 접근(빈트엑 가/부다페스트가)	없음
■ □ ■ 「뮐하임」광장 가로포석 변경예정 ■ □ 후방영역에 추가 지상주차장 없음 ■ □ ■ 공공영역에 추가 자전차거치장소 마련 ■ □ ■ 「부다페스트」가와 「플로렌티우스」 해자(亥자)와의 보행자 연결로 유지 및 연결로 폐쇄시설 마련 가로쪽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진입로 있음	없음
	폐쇄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기념물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 □ “옛 시청(Altes Stadthaus)” 입면에 건축적 조작금지	눈에 보이는 변경 없음
■ □ 보루(堡壘)벽으로부터 신건물의 거리 두기	벙커: (보루)벽을 주모지 로비에 보이도록 하여 증축에 포함시킴
■ □ 건물골조에 구조적 개입금지	1층과 2층에 내력벽을 기둥시스템으로 교체
■ □ 계단보존 ■ □ 기존 복도 규모 유지	주계단 보존, 부계단을 옮긴듯함

5) 「처마선 높이」(Traufhöhe eaves height) 개념은 유럽 도시 가로상(像)을 수직방향으로 규칙성 있는 연속적인 높이를 유지하게 하는 건축법 규정으로, 수평 투영적 성격의 건축선과 함께 도시계획적 두 가지 주요 개념이다.

계획법적 및 건축법적 영역의 요구사항	소견	공간계획/이용가능한 바닥면적(NF)	요구면적(㎡)	실제(㎡)	%
□ ■ □ 인동거리 준수	대지경계에 「지멘스·하우스」에 증축, 병커의 뒤편 인동거리 검토요	실현부분 총 아이디어부분 총	5,950~6,250 2,930	6,632 2,858	108.7 97.58
□ □ ■ 지구축조양태계획 (Bebauungsplan)의 내용 고려	「지멘스·하우스」건축선 초과, 병커증축 건축가능부지 밖에	실현부분 시립도서관 총	3,065~3,300	3,167	99.51
□ □ ■ 화재예방: 소방차 진입로, 건축적 방화등	방화구역 인지불가, 열린 중앙도서열람실 및 병커 증축에 방화구역 인지불가, 행사홀에 두 번째 구호길 없음 병커층을 올림에 “고층건물” 요구사항 필요	도서실 면적 사무실 면적 서고	2,215~2,450 600 250	2,251 666 250	69.51 111 100
□ ■ □ 필수적 피난길	비상구가 부분적으로 옥외로 이끌지 않거나, 타용도로 전용됨	국민대학 총 세미나실 사무실 여타제실 시립도서관/국민대학 공용 행정	2,350~2,400 1,795~1,820 455 110~135 285~300 250	2,593 1,983 468 142 497 제시안함	109.19 109.71 102.86 115.92 169.91 제시안함
□ ■ □ 필수적 계단실	병커 계단실에 직통하는 옥외계단 없음, 「지멘스·하우스」에 열린 계단실	아이디어 부분 시립박물관 총 상설전시 특수전시 출입구 어린이 워크숍 공작실 사무공간 사무 인접 공간 공작실 및 수장고	2,350 1,100 250 40 40 220 270 430	2,300 972 303 0 53 148 334 490	97.87 88.36 121.2 0 132.5 67.27 123.7 113.95
여타사항	방화구역에 대안으로서 완전한 스프링클러 설치	추모장소 총 전시공간 사무공간 시립박물관/추모장소 공용	380 180 200 200	357 174 183 201	93.95 96.67 91.5 100.5
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소견	투자 및 운영 제비용에 대한 목록을 비롯한 전략문서	소견		
시립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가 인지가능하도록 분리되지 아니함. 운영측면에서 두개의 도서관 출입구가 불가능하며, 도서관 층간을 연결하는 승강기 없음	■ □ □ 에너지 기술 개념 ■ □ □ 구조역학적 개념 □ □ ■ 비용한계 준수	적절하며 경제적 단순 초과 ≥ 20%		
국민대학(Volkshochschule)	1층에 서비스 및 자문 사무소 없음	형식적인 판단기준들 □ ■ □ 요구된 제(諸)과업	기존 임상(林棟狀)에 대한 언급없음, 도시 계획적 아이디어 부분에 대한 단계적 실현 표시가 글로서만, (배 치도 외의)도면 방위표시 결여, 식 별데이터 서류 1장만, 디지털 식별 데이터 서류 결여		
□ ■ □ 상세사항(도표참조)					
시립도서관/국민대학의 공동이용					
■ □ □ 상세사항(도표참조)					
행정이용					
■ □ □ 상세사항(도표참조)					
시립박물관	도면상의 전시공간 크기를 검토할 수 없음				
□ ■ □ 상세사항(도표참조)					
추모장소					
■ □ □ 상세사항(도표참조)					
시립박물관/추모장소					
■ □ □ 상세사항(도표참조)					
여타사항	전 설계도서에 승강기 문(門) 개구부 안목치수 검토불가	□ 1차 평가순회 □ 2차 평가순회 □ 3차 평가순회 □ 시상/작품매입			